



- 특집 _ 이상덕 청장, 추석 맞아 제천시 정착 고려인 격려·민생파악
- 한가위 기획 _ 입양동포들의 뿌리 찾기
- 정책 돋보기 _ “국내동포 정착지원, 새 아젠다로 삼겠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별도 앱 없이도 재외동포 민원 채팅 상담
- 이슈 & 화제 _ 국내 유일 & 최대 ‘2024 재외동포 문학상’



“K컬처 뿌리이자 한민족 정체성 산실은 바로 한국어”



정미령

영국 옥스포드대 명예교수
(런던한국학교 설립 주역)

1972년에 문을 연 영국 런던한국학교가 올해 개교 52주년을 맞았다. 현재 유럽에는 26개 국에 걸쳐 모두 115개(2020년 12월 현재) 한글학교가 있다. 이 가운데 영국엔 23개 학교가 있다. 특히, 런던한국학교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한글학교다.

1966년 이화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72년부터 국비 장학생으로 3년간 런던대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있었다. 논문 준비를 위해 6~13세 어린 학생들의 수학 능력을 비교하느라 영국과 한국 학생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한국 상사 주재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학교를 시작하게 됐다. 또한 이민 1세대의 자녀에 대한 꿈과 희망도 있었다. 자녀들이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꿈과 희망이 한글학교를 세워야겠다는 열정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72년 9월 한인회관으로 쓰이던 노팅힐 게이트 성공회 선교센터에서 당시 김성응 한인회장, 정종화 교수, 권인혁 주영한국대사관 영사, 김성열 동아일보 영국특파원 등과 의기투합해 런던한국학교 전신인 '재영 어린이학교'를 시작하게 됐다.

학생 9명으로 시작해 학생 수는 점차 늘어나 현재는 330명이나 된다. 당시 한국 유학생 등 3명이 교사로 참여했다. 모두 무보수 봉사였다. 교육 목표는 '영국과 한국의 다른 점을 이해시키고 현지 학교에 적응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었다.

이후 1991년에 옥스포드에서 또 한글학교를 시작해 당시 이흥구 대사(전 국무총리)가 개교식에 참석했다. 이때도 무료로 봉사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10년 연구 전담 교수로 지내다가 '정교수의회원(Congregation)'에 들어가게 됐고, 은퇴한 후 '종신 명예 교수 회원(Convocation)'이 됐다. 교육이라는 큰 집을 짓는데 나도 한 장의 벽돌 역할을 했다면 감사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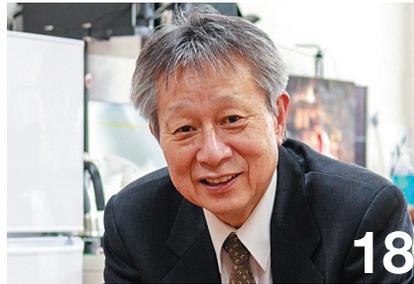
현재 한국학교 교사들에게 당부가 있다면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거주국과 한국의 다른 점을 비교,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 줬으면 하는 것이다. 아주 쉽고 일상적인 토픽부터 시작해 어렵고 까다로운 개념으로 점차 업그레이드시키면 재미있을 것이다. 이로써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식 자체보다 배운 과목을 기반으로 사물을 분석하고 응용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키워 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번 2024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메달 순위에서 유럽의 강국 독일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8위를 차지했다. 세계 경제 10위권에 이어 스포츠 강국이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한류의 영향이 크다. 특히, K컬처, K푸드의 뿌리이자 한민족 정체성의 산실은 바로 한국어다. 한국어는 한류의 시작이자 끝이다. 현재 영국에 있는 한글학교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차세대 재외동포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 주는 한국어 교육기관이면서 다른 문화권 출신이나 현지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외국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으며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런던한국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게 런던한국학교가 더부살이에서 벗어나 자체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본다. **정**





- 02 창을 열며 “K컬처 뿌리이자 한민족 정체성 산실은 바로 한국어”
정미령 영국 옥스포드대 명예교수(런던한국학교 설립 주역)
- 04 특집 고려인들 웃놀이 즐기고 저녁 함께하며 명절 분위기 만끽
- 08 한가위 기획 **입양동포들의 뿌리 찾기**
미국 입양 한인 강수창씨 “더 늦기 전에 친가족 찾고 싶어요”
스위스서 한식당 운영 입양한인 “친가족 힘껏 안아보고파”
34년 만에 다시 뿌리찾는 프랑스 입양한인 “엄마 묘소에 성묘라도”
친가족 상봉 후 연락 끊긴 스위스 입양한인 “친형 찾고파”
- 12 정책 돋보기 “국내동포 정착지원, 새 아젠다로 삼겠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별도 앱 없이도 재외동포 민원 채팅 상담
- 14 이슈 & 화제 국내 유일 & 최대 ‘2024 재외동포 문학상’
- 17 OKA 뉴스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 이상 무”
- 18 인터뷰 박경수 교토국제교 전 교장 “아구 통해 한일 간 가교 역할”
앤디킴 “트럼프-김정은 악수는 ‘쇼맨십’…실질적 전략 필요”
- 20 뉴스 속으로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출범…“경제영토 확장 뒷받침하겠다” 외
- 24 동포 캘린더 ‘제22차 한독포럼’ 독일서 개최…양국 협력 방안 논의 외
- 25 기고문 인구감소 대책, ‘재외동포청’ 이 나서야
강남중 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전 버지니아주한인회장)
- 26 재외동포청 공지 전북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신청 연장…9월30일까지

발행인: 이상덕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32-585-3100,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고려인들 웃놀이 즐기고 저녁 함께하며 명절 분위기 만끽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입소 동포에 격려품 전달... “행복한 명절 되길”

올해는 러시아 연해주 지신허 마을에 13가구의 한인이 정착한 지 160주년 되는 해이다. 12일 저녁 7시30분 충북 제천시에 있는 제천시 재외동포 지원센터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제천으로 이주해 온 고려인 동포들을 위한 2024년 고려인 동포 추석 명절 맞이 화합 대잔치가 열린 것.

제천시는 인구·지방 소멸 시대를 맞아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고려인 동포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제천시와 제천시 재외동포센터가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해 김창규 제

천시장, 김영철 대원대총장과 고려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절 인사를 건네고 격려품을 전달했다. 고려인들은 민속놀이인 윷놀이를 즐긴 후 저녁을 함께하며 명절 분위기를 만끽했다.

제천시 이주 고려인 1·2호 출산 부부 축하회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제천시 이주 고려인 1·2호 출산 가정의 소중한 새 생명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 주인공은 반가이 에브게니·차가이 나탈리아 고려인 부부 사이에서 탄생한 반가이 아멜리아 양과 플레이 올가와 플레이 파벨 부부가 출산한 플레이 엘리자베타 양. 제천시 이주 고려인 동포는 모두 3가정이 출산했으나 3호 출산 가정은 아기가 갓 태어난 탓에 아쉽게 참석하지 못했다.

이상덕 청장은 김창규 시장, 김영철 총장과 함께 이들 부부를 축하하고 격



이상덕 청장이 12일 제천시 정착 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초청해 축하품을 전달하고 축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철 대원대 총장,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김창규 제천시장. 반가이 에브게니·차가이 나탈리아 부부와 플레이 올가와 플레이 파벨 부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12일 저녁 제천시 재외동포 지원센터에서 열린 2024년 고려인 동포 추석 명절 맞이 화합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려품을 전달했다.

이 청장은 “고생한 산모와 가족들, 그리고 예쁜 아기가 건강하기를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네면서 국내로 이주해온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인구감소나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천시 정착에 앞서 적응을 위해 재외동포지원센터에 입소해 있는 고려인 동포는 현재 22가구 63명. 대부분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이날 행사는 퇴근 시간에 맞춰 진행됐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천시는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기 체류시설 제공,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취업 및 주거지 연계와 보육·의료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뿌리 내리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앞서 이 청장은 김 시장과 함께 제천시에 정착한 고려인 생활 터전인 홈 베이커리와 나타, 마리아 식당 등을 둘러보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재외동포청은 고려인 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동포가 87만 명이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초기 정착 준비를 돕는 ‘국내 동포 정착지원 안내서’를 배포하고, 한국어 구사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제천시처럼 적극적인 재외동포 이주를 지원하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국과 국내 동포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산모 나탈리아 “재외동포청장께 감사”

지난 6월 6일 출산한 산모 차가이 나탈리아(25)는 이날 기자와 만나 “한국인들은 예의 바르고 매우 친절하다”면서 특별히 “멀리서 찾아오셔서 축하해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최근 충북도와 제천시는 출산 가정에 1000만 원을 출산 장려금으로 지급기로 결정해 이들 부부는 혜택을 받게 됐다며 감사하다고 했다. 나탈리아 씨는 “아기가 한국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만을 바랄뿐 다른 바램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거처와 일자리를 마련해준 제천시에도 감사함을 전했다. 전자동차 부품회사인 일진글로벌에 다니던 남편이 아기 공동양육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는 고려인들이 제천으로 이주해 오면 제천시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해 주고 4개월간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 준다. 또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4개월간 보호기간이 지나면 센터를 떠나 제천시의 지원으로 시내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출신으로 이곳 사감을 맡고 있는 임세르게이(53)씨는 기자와 만나 “한국에 정착하려면 한국어가 필수 인데, 소수의 인원이라도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취업에 활용되는 한국어와 한국의 조직문화에 대한 교육과 실생활과 밀접한 법과 제도를 체계적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12일 저녁 제천시 청전동에서 고려인이 운영하고 있는 마트 '나타'를 김창규 시장과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고려인 발렌티나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러면서 "고려인 동포는 물론이고 재외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에서 고려인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인천, 안산, 광주, 청주, 경주 등이다. 이들 지역에선 고려인 동포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으나 제천은 이들 지역과 달리 한국인들 속에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문화에 빨리 동화하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취지다.

제천시는 지난해부터 국내외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제천시 이주정책 지원사업'을 펼쳐 현재 73세대 172명이 등지를 틀었고 이주를 앞둔 인원까지 포함하면 401명이 제천시민이 될 예정이다. 김 시장은 "고려인의 이주·정책을 향후 1천명까지 늘려 제천을 고려인 거주 중심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고려인마을 1일부터 '골목여행' 운영 역사·문화 체험...11월 말까지 1천600명 모집

한편,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깃든 광주 고려인마을을 구석구석 탐방하는 여행상품이 지난 1일 운영을 시작했다. 광주 광산구와 사단법인 광주 고려인마을은 이날 '고려인마을 골목여행'에 참가한 관광객을 맞이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12일 저녁 제천시 재외동포 지원센터에서 열린 2024년 고려인 동포 추석 명절 맞이 화합 행사에서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려인마을 골목여행은 강제 이주, 항일운동, 옛 소비에트연방(소련) 해체, 귀환, 이주민 사회 형성 등 근현대사의 격동과 애환이 서린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탐방 상품이다. 오는 11월 말까지 총 1천600명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아시아 의상 입기, 러시아 전통 인형인 마트료시카 꾸미기, 이역만리에서 김치 대응으로 먹었던 마르코프차 담그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기록과 유물 등 1만2천여 점을 소장한 월곡고려인문화관을 중심으로 한 역사 해설 행사도 만나볼 수 있다. 탐방 코스는 어린이 동반, 학생 단체, 성인, 외국인 등 참가 대상을 구분해 총 4개로 구성했다.

참가비는 1인당 9천900원이다. 중앙아시아식 식단의 한 끼 식사, 여행자보험, 고려인마을 내 상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5천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포함됐다. 참가 신청은 월곡고려인문화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광산구와 고려인마을은 월곡동 고려인마을을 역사 관광 명소로 가꾸고자 골목여행 상품을 기획했다. 누적 관광객 '1천만'을 목표로 다양한 여행 상품과 행사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골목 곳곳을 직접 걷고 보고 느끼며 광주에서 중앙아시아 문화와 고려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광주 광산구 월곡2동 다모아어린이공원(홍범도공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광주 고려인마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귀환한 한인의 후손 7천여 명이 모여 산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 후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고려인 가운데 광주에 연고를 둔 전쟁 난민도 일부 머물고 있다. **장**



제천시 이주 고려인 1호로 출산한 차가이 나탈리아(25) 씨. 그는 이날 기자와 만나 “한국인들은 예의바르고 친절하다”면서 “출산을 축하해 주러 먼길까지 오신 재외동포청장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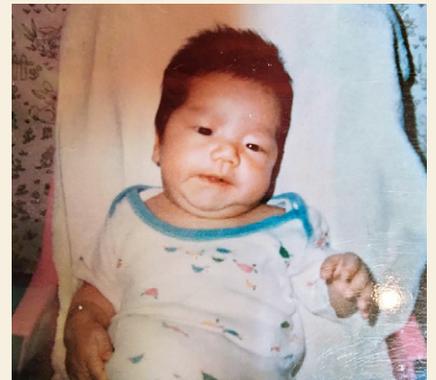


12일 저녁 제천시 재외동포 지원센터에서 열린 2024년 고려인 동포 추석 명절 맞이 화합 행사에서 고려인들이 민속놀이인 윷놀이를 즐기고 있다.

“ 6·25전쟁으로 전쟁고아의 입양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약 20만 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됐다. 한때 세계 최대 고아 수출국이라는 불명예도 안았다. 그러나 지난 2007년 해외 입양아 수를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한 이후 국내의 입양이 줄었다. 한국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해외로 입양아를 보내는 나라다. KBS는 1983년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이산가족찾기 프로그램으로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됐다. 9월 17일은 한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다. 재외동포청은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한가위 기획으로 입양 동포들의 가족찾기 지면을 꾸렸다. 내년 추석엔 헤어진 가족과 보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편집자주> ”

미국 입양 한인 강수창씨 “더 늦기 전에 친가족 찾고 싶어요”

1985년 7월9일생...“뭔가 모르는 게 있다는 생각 끊이지 않아”



미국 입양 한인 강수창 씨의 어릴 적 모습.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팀 제공.

미국 입양 한인 강수창 씨(오른쪽)와 그의 가족.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팀 제공.

“나이 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친부모를 만나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입양 한인 에릭 레이네어트(한국명 강수창·39) 씨는 5일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팀에 보낸 뿌리 찾기 사연을 통해 “아내 및 6개월 된 딸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입양 기록에 따르면 강씨는 1985년 7월 9일 오후 7시13분 인천 중구 성애의원에서 태어났다. 강씨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던 친모는 그가 좋은 가정으로 입양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병원

을 떠났다. 이후 강씨는 보육원인 명성원을 거쳐 대한사회복지회에 입양 의뢰됐고, 같은 해 11월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강씨는 “오래전부터 친부모를 찾고 싶었다”며 “양부모로부터 사랑받으며 자랐지만, 항상 뭔가 모르는 게 있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친가족을 궁금해하는 것처럼 친가족도 나에게 궁금해하고 찾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왔다”며 “내가 누군지 알고 싶고, 친가족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스위스에서 한식당 운영 입양한인 “친가족 힘껏 안아보고파”

1969년 1월20일생 김영희씨…“세 딸 모두 한국 유산에 자긍심”



스위스 입양 한인 김영희 씨의 남편(왼쪽에서 두 번째)과 세 딸. 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인지원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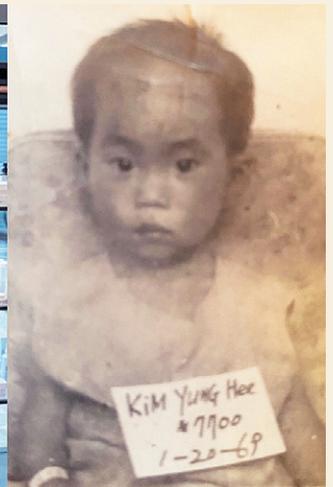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 친부모께 저는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하고 싶어요. 친가족을 만나면 힘껏 안아보고 싶습니다.”

스위스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입양 한인 베아트리체 오베르(한국명 김영희·55) 씨는 4일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팀에 보낸 뿌리 찾기 사연에서 “심장마비로 힘든 시간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회복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입양 기록에 따르면 그는 1969년 1월 20일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듬해 7월1일 경남 함안군의 논에서 발견됐고, 함안군청에 의해 한 보육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1971년 3월 스위스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등 아래쪽에 2cm 크기의 갈색 반점이 있는 게 그의 신체적인 특징이다.

스위스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한 김씨는 1993년 결혼해 세 딸을 두고 있다. 첫째 딸은 스위스 유명 요리사의 보조 셰프로 활동하고 있다.

김씨는 “딸들 모두 자신이 가진 한국의 유산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고, 한국을 배우려고 노력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1986년 친가족 찾기를 위해 처음 한국을 찾았고, 2009년 재차 방문해 궁중음식연구원에서 한국 음식을 배우기도 했다.



스위스 입양 한인 김영희 씨의 현재 모습(왼쪽)과 어릴 적 모습.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팀 제공.

2017년에는 김치 회사를 만들었고, 2019년 스위스 전통 요리와 한식을 같이 맛볼 수 있는 식당을 열어 요리사인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34년 만에 다시 뿌리찾는 프랑스 입양한인 “엄마 묘소에 성묘라도”

1972년 6월15일생 유영자씨...“한국 거주 다른 가족 만나고파”



프랑스 입양 한인 유영자 씨의 현재 모습.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팀 제공



1990년 여름 상봉한 프랑스 입양한인 유영자 씨와 그의 가족.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팀 제공

“이제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없겠지만 묘소에 찾아가 성묘라고 하고 싶어요.”

프랑스 입양 한인 마리 플뢰르 제아벵(한국명 유영자·52) 씨는 20일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팀에 보낸 뿌리찾기 사연에서 “한국의 다른 친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입양 기록에 따르면 유씨는 1972년 6월15일 경기 이천시에서 태어났다. 유씨가 어릴 때 친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형편이 어려워진 친모는 그를 데리고 집과 보육원으로 오가는 생활을 반복했다. 어느 날 유씨가 집에 있던 달력 속 한 나라를 가리키며 친모에게 “저기 가고 싶어”라고 말했고, 친모는 딸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며 유씨를 입양 기관에 맡기고 더는 찾지 않았다. 이후 유씨는 1978년 12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프랑스의 한 가정에 입양돼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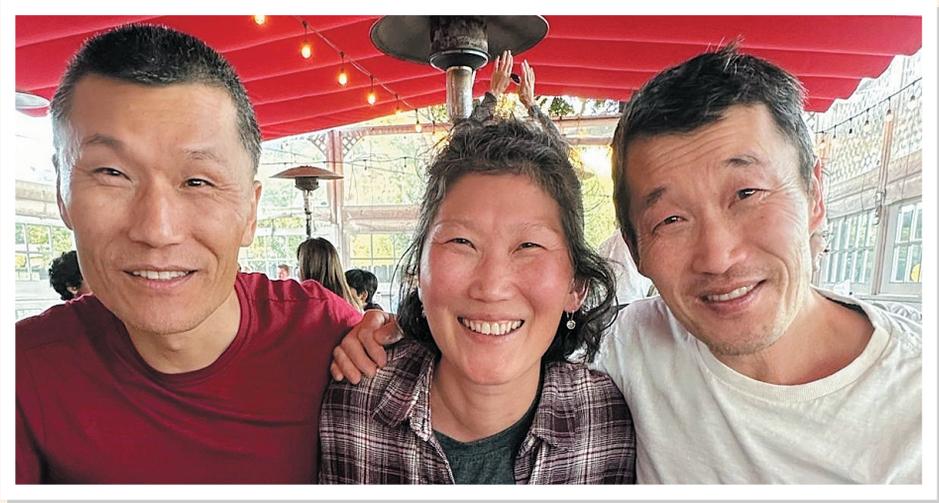
어릴 적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 고민했던 유씨는 1990년 여름 처음 친가족 찾기에 나섰다. 대형 항공사에서 일하던 양부는 종종 한국을 방문했고, 홀트아동복지회 측과도 연락하고 있었다.

마침 그의 친모도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서 친가족과의 상봉은 다른 해외 입양인들과 달리 어렵지 않았다. 유씨는 그해 여름 친모와 언니, 오빠를 만나 보름 동안 함께 지냈고, 앞으로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유씨와 친가족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던 이들과 연락이 끊기면서 소통이 단절됐다. 유씨는 “친가족과 만나 입양과정과 당시 상황을 모두 알게 됐다”며 “더 궁금한 게 없었고, 현재 삶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 유씨는 세 아이의 엄마가 됐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한국 가족에 대해 궁금해하자 친가족과 만나고 싶다는 마음에 지난해 다시 한국을 찾았다. 그러나 그는 친가족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지 못했고, 친모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접했다. 유씨는 “한국 입양법상 당사자는 친부모만 찾을 수 있고, 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더라도 형제들을 찾을 수 없다”며 “30여년 전에 만나 서로의 존재는 알고 있는 언니와 오빠를 만나거나 찾을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친가족 상봉 후 연락 끊긴 스위스 입양한인 “친형 찾고파”

1967년 5월27일생 정현욱씨...“친모 묘소와 친부 정보 알고 싶어”



스위스 입양 한인 정현욱 (왼쪽에서 첫 번째) 씨와 여동생 혜경 씨, 쌍둥이 형제 원욱 씨,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팀 제공.

“한국에서 친가족과 상봉한 후 20년 동안 틈틈이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언어 장벽이 존재했고, 각자 가족을 꾸리고 바쁘게 살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친형을 찾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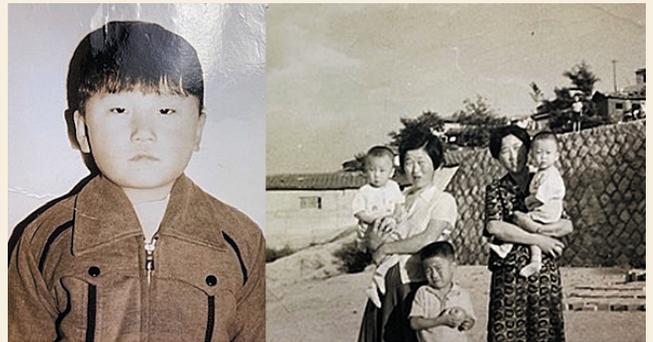
스위스 입양 한인 바실리오 잔다(한국명 정현욱·57) 씨는 14일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팀에 보낸 뿌리 찾기 사연에서 “우리 세 남매는 늘 형을 생각해왔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입양 기록에 따르면 정씨는 1967년 5월 27일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6년 뒤인 1973년 11월 한국사회봉사회를 통해 스위스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정씨의 친모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혼자 네 남매를 키우기 어려워 첫째만 남겨두고 세 남매를 입양 보냈다. 정씨 이외에 그의 쌍둥이 형제 원욱 씨는 스위스의 다른 가정으로, 여동생 혜경 씨는 미국 가정으로 각각 입양됐다.

정씨는 1989년에서야 160km 떨어진 곳에 원욱 씨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스위스에서 재회한 두 사람은 이듬해 친삼촌을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 이들은 친삼촌을 통해 혜경 씨와도 다시 만나게 됐다.

이후 세 남매는 함께 한국으로 건너가 친모와 친형 성욱 씨, 사



스위스 입양 한인 정현욱 씨의 어린 적 모습.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팀 제공.

촌, 조모 등 친가족과 상봉했다. 하지만 각자의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소홀한 사이 친모는 세상을 떠났고, 다른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겼다. 정씨는 2년 전 아내 및 자녀와 함께 한국을 다시 찾았지만, 이번에는 친가족과 만날 수 없었다.

정씨는 “입양법상 당사자는 친부모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친형을 찾을 방법이 없다”며 “친형을 만나 친모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고 어디에 묘소를 마련했는지 묻고 싶고, 친부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

“국내동포 정착지원, 새 아젠다로 삼겠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첫 재외동포 정책자문회의 열고 입장 표명



8월 30일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덕 청장(오른쪽서 세 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이상덕 청장 주재로 8월 30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재외동포청 청사 36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박인기 경인고대 명예교수(위원장)를 포함해 고상구 베트남 K&K 트레이딩 회장, 이진영 인하대 교수, 강성철 연합뉴스 재외동포 전문기자, 최병천 월드코리아 신문 편집이사,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신연정 차세대위원이 참석했으며, 미국 거주중인 재외동포 김영길, 최미영 위원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이상덕 청장은 “국내거주 재외동포가 증가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수요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국내동포 정착지원은 재외동포청이 고민하고 체계를 잡아나가야 할 새로운 정책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포청은 외국인 대상 이민 정책과 차별화된 국내 동포 맞춤형 정책과 토탈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위원들의 고견을 구했다.

자문위원들은 지방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내동포

정착지원 정책의 시의성과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고, 동포청이 추진하는 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문위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모았다.

특히, 박인기 위원장은 국내동포 정착 지원 정책의 중요과제로서, 동포청이 언어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지자체 ▲교육 전문기관 등과 협업하여 실효성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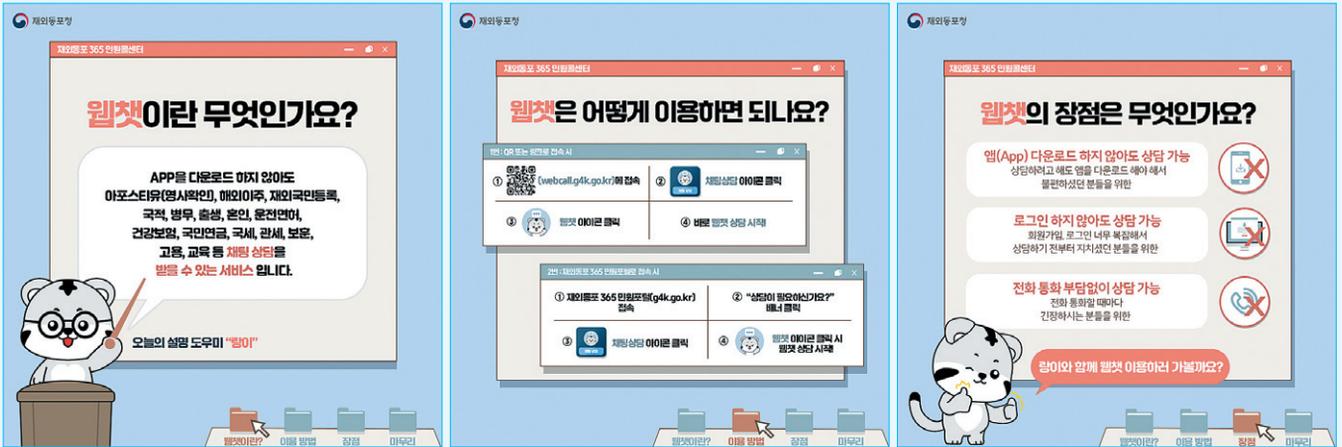
또한, 위원들은 국내동포의 출신국가, 연령 등이 다양한 만큼, 동포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종합적이고 세밀한 정책 추진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재외동포들의 국적회복,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지자체와의 협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국내동포 정책은 국내 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할 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소통을 통해 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장**

이제 언제 어디서나 별도 앱 없이도 재외동포 민원 채팅 상담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10일부터 데이터채팅(웹챗) 민원 상담 서비스 개시



해 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이제 언제 어디서나 별도의 앱 없이도 쉽고 편리한 데이터채팅(웹챗)을 통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10일부터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가 웹챗 민원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출범과 동시에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02-6747-0404)’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체류 재외동포들에게 365일 24시간 5개 국어로 전화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그간 카카오톡 상담 도입(1월 19일), 데이터 통화(웹콜) 상담 도입(4월 30일) 등 서비스 향상 및 접근방법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카카오톡 제한 국가에 체류 중이거나 카카오톡 이용이 어려운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인터넷만 연결할 수 있으면 별도의 앱 없이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웹챗 서비스

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제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는 전화, 카카오톡, 웹콜에 이어 웹챗까지 상담 채널을 구축한 셈이다.

웹챗 이용방법은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또는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다.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는 이번 웹챗 서비스까지 다각화된 상담 채널 구축을 통해 전 세계 재외동포들에게 보다 편리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민원 상담 서비스 주무부서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웹챗 서비스는 말로 하는 상담이 부담스럽거나 간단한 문의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동포분들께 맞춤형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센터는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https://webcall.g4k.go.kr>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https://g4k.go.kr>

국내 유일 & 최대 '2024 재외동포 문학상'

대한민국 대표작가 구효서 · 박상우 · 이경자, 문태준이 말하다

53개국서 504명 출품... 전년대비 응모자 81%(225명), 응모작도 84%(597편) 증가



2023년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 작품집 표지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2024년 재외동포 문학상'을 공모한 결과 전년대비 응모자가 81%(22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모작도 84%(597편) 늘어났다. 총 53개국에서 504명, 1,304편이 출품됐다. 예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삭감되어 시상 인원이 대폭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자 및 접수작품이 작년에 비해 80% 넘게 증가했다

올해 26회째를 맞는 이 문학상은 한글문학 창작활동 장려를 통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 및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 공모는 시, 단편소설, 수필·수기 등 3부문으로 진행했다.

9월 말 심사결과 발표

각 부문에서 대상(상금 500만원)과 우수상(상금 250만원), 가작(상금 100만원)을 시상하여 수상자는 9월 말 재외동포청(oka.go.kr)·코리안넷(korean.net)·소통24(sotong.go.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작품집 '2024 재외동포 문학의 창'에 수록해 배포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은 소설가 구효서·박상우·이경자, 시인 문태준이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2024년 '제26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후보작에 대해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 검증을 실시했다.

검증대상은 '제26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후보작 총 13편이다. 수상후보작은 ▲시 부문 '그집', '모시', '나의 마을이 불타고 있다', '미역 뿌리' ▲단편소설 부문 '고 웨스트', '말복 씨의 여름', '낙원에 있으리라', '팔마 데 마요르카 (Palma de Mallorca)' ▲수필·수기 부문 '나의 버킷 리스트 제1호', '별은 나를 꿈꾸게 하고', '가까운 천국', '중동에서 다섯 번째 전쟁을', '이웃집 여자 린다'.

작품 전문은 소통24 홈페이지(sotong.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작품 전문 링크: <https://me2.do/GEXXnaxS>

구효서 “재외동포의 문학작품은 ‘또 다른 나’를 뜨겁게 만나는 일”



재외동포 문학상 심사위원을 맡게 된 소감은?

“외국의 어느 길거리에서 우연히 한국어를 듣게 되었을 때의 말할 수 없는 감정, 그것은 기쁘다 좋다를 넘어 본능적이라고 할 만큼 즉각적인 ‘울컥함’이다. 재외동포의 문학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이역만리 타국에 존재하는 그러한 ‘또 다른 나’를 뜨겁게 만나는 일이며,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공유하는 ‘언어’ 문제에 대해 ‘재외동포 문학상’은 한국작가로서 그것을 탐구할 매우 실질적인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했다. 다른 면에서는 재외동포의 작품은 특파원 보고와도 같아서 그들의 작품은 끝없이 내국인 작가의 ‘인식의 바깥’을 자극하고 확대하여 세계를 보는 안목과 시야를 깊고 넓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여타 신춘문예, 문학 공모전들과 재외동포 문학상이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있는지?

“한국문학이나 세계문학이 그런 것처럼, 신춘문예 등의 문학 공모전과 재외동포 문학상 모두 그 어떤 제한이나 제약 없이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자유롭게 쓰인 언어적 결과물이다. 다만 한국문학은 한국어로 창작된 작품에 한정된 것이듯이 재외동포 문학상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어로 쓴 작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특징이 더욱 도드라진다. 여전히 내용과 형식을 자유롭게 활달하게 다룬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국, 한국인, 한글이라는 요소가 작품의 배면에 숙명인 양 드리워지는 특징이 있다.”

박상우 “유쾌한 문학, 나누는 문학 향해 재능을 마음껏 펼치길”



‘재외동포 문학상’에 참여하는 여러 작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문학은 활용하기에 따라 인생을 개량하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 책 많이 팔리는 유명작가가 되어야겠다는 욕망에만 시달리면 문학이 고통스런 자기 고문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세상의 모든 문학이 인간과 인생의 문제를 주제로 삼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것의 내적 가치에 눈을 돌리면 그것을 이용해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타인과의 소통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도구로 문학을 활용할 수 있다. 문학에는 국경이 없으니 즐거운 문학, 유익한 문학, 유쾌한 문학, 그리고 나누는 문학을 향해 자기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

올해 ‘재외동포 문학상’이 다른 점이 있다면?

“재외동포청으로 승격된 이후, 운영 시스템과 실무적 접근 방식, 대외 홍보와 심사위원진 편성 등등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K컬처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흐름에 재외동포문학상 운영 기금이 대폭 삭감되어 위축된 경영을 하는 듯하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K문화를 해외에 적극 홍보하는 것보다 자국 동포에 대한 배려가 훨씬 우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문학상 운영진이 대외 홍보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올해 공모작이 작년에 비해 84%나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늘려 재외동포들이 K컬처의 그림자로 살지 않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코리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싶다.”

이경자 “그 삶의 현장에서 모국어로 문학작품 쓴다는 건 ‘아주 특별한 것’”



오랜 기간 ‘재외동포 문학상’ 심사를 맡아 오셨는데,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지 말씀해 주신다면?

“일회성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란, 문자라는 도구로 표현되고 문자가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던,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서 볼 수 있되 사진처럼 낡지 않는 특별함도 있습니다. 문자로 형상화되는 예술의 위대함입니다.”

다른 문학상과 재외동포 문학상이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수필과 생활 수기의 경우 ‘재외동포’ 특수한 삶의 현실이 반영되는, 소재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모국어로 사유하고 모국어로 문학성을 가진 글을 쓴다는 건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재외동포 문학상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재외동포 문학이란, 나고 자란 나라로부터 떠나 다른 곳에서 다른 언어로 말하고 다른 풍속에 스며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수성이 잘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더해 빼어난 문학성으로 다른 민족이나 다른 언어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면 충분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에서 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모국어의 축제에 성원을 아까지 말아야 할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문학상’은 더 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국가적 사업입니다.”

문태준 “재외동포 문학상을 구심점으로 연대와 결속의 축제가 되었으면”



올해 제1회 ‘무산문화대상’ 문학 부문의 첫 수상자가 되셨는데, 소감은?

“올해로 등단 30년을 맞았는데, 앞으로 시 쓰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다른 데에 눈을 두지 말고 제 시세계의 영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라는 격려와 당부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시의 갱신에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애쓸 생각입니다.”

작품활동을 하면서 여러 나라 시인들의 시를 접해 보셨을 텐데, 나라마다의 특징이 있는지, 재외동포 문학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물론 나라마다의 지역적 풍토와 풍습 등이 작품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뚜렷해진 전반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응모한 작품들이 다소는 모국에 대한 그리움과 과거의 기억에 바탕을 해서 창작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성향에서 점차 벗어나 현 거주지에서의 일상과 시적 체험을 적극적으로 독창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창작에 대한 열의와 작품의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문학상 응모작들을 그 나라 언어로 다시 번역해 그 나라 시단에 내놓는다면 그 나라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 문학상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더 많은 전 세계 재외 동포들의 호응이 계속 이어져서 이 문학상을 구심점으로 해서 연대와 결속의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 이상 무”

이상덕 청장, 9일 전주 대회장 등 찾아 “차질없이 준비” 약속

오는 10월 전북 전주에서 개최되는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 재외동포청장이 전북자치도와의 협조를 비롯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대회 개최 한 달 반여를 앞두고 9일 대회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열리며 국내외 재외동포 기업인 등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행사다.

이 청장은 기업전시관이 들어서는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을 비롯해 개최식이 열리는 삼성문화회관,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진수당, 환영만찬 및 폐회식이 열리는 실내체육관 등을 살피며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재외동포 경제인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호텔을 찾아가 객실 확보부터 시설 상태 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이울러 대회 참가자들의 원활한 접근 보장을 위해 주요 동선별 셔틀버스 운행, 주차 공간 확보 등 교통 대책은 물론, 각종 사태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왼쪽서 두 번째)이 9일 전북대 대운동장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관계자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준비가 잘 되어 있어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도 자주 내려와 전북자치도와 차질 없이 준비해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대회가 임박한 만큼, 빈틈없는 행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도 재외동포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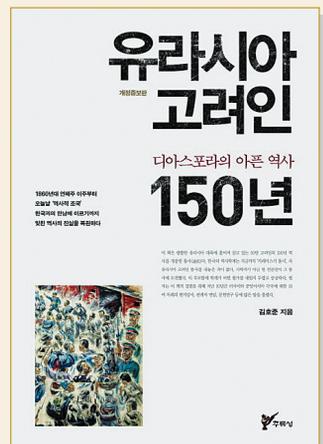
재외동포청 추천 도서

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

김호준 / 주류성

이 책은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에 흩어져 살고 있는 50만 고려인의 150년 역사를 개괄한 통사(通史)다. 한국의 역사학계는 지금까지 ‘카레이스키 통사’, 즉 유라시아 고려인 통사를 내놓은 적이 없다. 사학자가 아닌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언론인이 그 통사에 도전했다. 필자는 이 책의 집필을 위해 지난 10년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각국에 대한 10여 차례의 현지답사, 관계자 면담, 문헌연구 등에 많은 땀을 흘렸다.

이 책은 고려인들의 1860년대 연해주 이주부터 시작해 오늘날 ‘역사적 조국’ 한국과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잊힌 역사의 진실을 개괄적으로 복원한 것이다. 고려인 사회의 그러한 축적을 바탕으로 두고 한국 사학계의 연구 실적과 저자의 개인적인 연구결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인 150년사에 관해 총체적으로 정리했다.



박경수 교토국제고 전 교장 “야구 통해 한일 간 가교 역할” ‘동해’로 시작하는 한국계 학교 교가 NHK로 일본 전역에 생중계



“**동**해 바다 건너서 아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외국계 학교 최초로 일본 선발교야구대회(고시엔)에 우승한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국제고등학교 교가는 이렇게 시작한다. 교토국제고의 가사에는 한국과 일본이 수천 년 전부터 교류해왔고, 우리의 선조들이 일본에 건너와 뿌리를 내리기도 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모든 경기가 일본 공영 방송 NHK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고시엔 대회에서 ‘동해’로 시작하는 한국계 학교의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졌다. 교토국제고의 고시엔 우승 소식에 현지 언론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박경수(64) 교토국제고 전 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독과 선수 모두 고무돼 있다”며 “한국과 일본 아이들이 같이 뛰면서 야구를 통해 한일 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내 임기 중에 교가를 (일본어로) 바꿀 생각이

었다”며 “한국어 교가에 거부감을 가진 일부 우익 일본인들의 항의로 학생 안전이 우려됐던 탓”이라고 털어놓았다.

교토국제학원은 1947년 교토조선중학교로 시작해 1958년 학교법인 교토한국학원 법인 설립을 승인받았고, 1963년에는 고등부를 개교했다. 한국 정부의 중학교, 고등학교 설립 인가에 이어 2003년에는 일본 정부의 정식 학교 인가도 받았다.

1999년 창단된 교토국제고 야구부는 초기엔 야구 미경험자가 대부분이어서 첫 연습 경기에서 0-58로 대패하는 등 고시엔 진출은 꿈도 꿀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서서히 실력을 키운 교토국제고 야구부는 2016년부터 지역 대회 4강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2019년 춘계 지역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교토의 야구 명문고로 부상했다.

한국어 교가 때문에 일본 우익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박 전 교장은 “(교가 때문에) 일본 우익이 홈페이지나 트위터 등을 통해 시비를 걸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인가한 정식 학교인데 ‘일본해’를 ‘동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국제사회에서 동해를 어떻게 표기하느냐는 문제는 한일 간 외교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본 전역에 생중계되는 고시엔 대회에서 교토국제고 교가가 울려 퍼지면 우익의 공격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교장은 “70년을 불러온 교가다. 한국어 교가를 부르지 못하면 전국 대회에 나가는 의미가 자체가 퇴색된다”며 “졸업생과 교포 사회는 우리말 교가를 불러야 한다는 게 염원이다. (K팝을 좋아하는) 일본인 재학생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교장은 지난 8월 30일 국립한밭대에서 열린 8급 이하 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강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낸 제자들의 노력과 벅찬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공직 생활에 있어 항상 긍정적인 사고와 힘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1984년 공무원으로 시작해 교육부, 주 오사카 총영사관 영사(교육 담당) 등을 거쳐 2017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토국제고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시엔 우승 기반을 다졌다. 

앤디김 "트럼프-김정은 악수는 '쇼맨십'...실질적 전략 필요" 한국계 첫 연방 상원의원 당선 유력...한인여성 총격사망 사건 간담회 참석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 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뉴저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장면을 '쇼맨십'이라고 평가절 하하고 한반도 정책에 있어 한미일 삼자 관계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경찰 총격에 사망한 한인 여성 이모(26)씨 사건과 관련해 열린 간담회 후 기자와 만나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한미 관계 및 한반도 정책에 관해 이처럼 말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 되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한미일 간 삼자 노력을 계속 추진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며 "혁신기술 및 경제 분야에서의 한미 간 투자 파트너십 확대와 더불어 이는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우선순위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실질적인 전략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악수하는 장면과 같은 사진을 위한 쇼맨십이어서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과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저와 동료들도 그녀와 함께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일과 큰 대조를 이룬다"라고 평가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망에 대해선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지만 "미국 정치에 관해서라면 어떠한 가정도 해선 안 된다"라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이 등장할 것이라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일하면서 그녀가 (대통령에) 적합한 인



앤디 김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뉴저지)이 6일(현지시간)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열린 한인 여성 경찰 피격 사망 사건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물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뉴저지주에서 하원의원 3선 고지에 오른 김 의원은 지난 6월 뉴저지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자리를 거머쥐었다. 뉴저지주는 지난 1972년 이후 50여년 간 치러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내리 당선됐을 정도로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김 의원의 상원 진출이 유력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간담회는 한인 밀집 거주지역인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조울증을 앓던 20대 한인 여성이 지난 7월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 이후 주민들의 우려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총격을 가한 경찰관의 처벌과 관련해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아직 말하기에 이르다"면서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출범…“경제영토 확장 뒷받침하겠다”

김성원 의원 대표로 여야의원 17명 참여 월드옥타 지원 등 결의



8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 함께한 세계한인경제인포럼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을 지원하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출범식이 29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대표 체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출범식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 연구책임의원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김태호 전 외통위원장, 배현진·김상훈·박수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4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김교흥·조인철 의원이 자리했다.

전임 대표를 역임했던 김정훈·이원욱 전 의원과 안경률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조종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도 참석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에서는 박종범 회장, 주대석 부회장, 양기모 상근부회장 등이 함께했다.

김성원 대표는 개회사에서 “이 포럼이 추구하는 가치는 대한민국 경제영토 확장에 있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한인 경제인들을 국

회가 지속해서 뒷받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포럼은 월드옥타의 세계대표자대회(4월) 및 세계한인경제인대회(10월)를 지원하고, 해외동포 경제인 및 경제단체와 교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출범식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월드옥타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결의했다.

주호영 고문은 격려사에서 “모국과 상생발전에 앞장서 온 월드옥타는 67개국 146개 지회를 갖춘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로 국내 경제 7단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범 회장은 축사에서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모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교두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소개했다.

포럼은 2002년 5월 국회 재외동포경제정책연구회로 출범했고, 2020년 세계한인경제포럼으로 단체명을 변경했다.

재외동포청, 인천서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개최

'K-뷰티' 수출상담회도 성황리에 열려...184억원 상담



8월 2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과 수출상담회 개막식에서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류 열풍과 더불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뷰티' 산업의 확산을 위한 전문가 포럼과 수출 상담의 장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9일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과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이날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은 개회사에서 "재외동포청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들을 모색했고, 그 결과 국내외 경제인 간 '상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의 리더인 재외동포 경제인 약 200명을 모시고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위원(OK Biz)'을 발족했다"며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오늘의 행사"라고 소개했다.

황효진 인천 글로벌도시 정부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인구 300만을 돌파한 인천은 성장의 도시이자 제2의 경제도시, 인천공항과 함께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제3의 개항을 통해 글로벌 톱 10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이 세계와 연결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화장품협회 회장인 권용수 I&K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2024

년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3조2천억 원을 넘어섰다. 수출 시장도 다각화돼 무려 175개국에 수출한다"며 "한국은 세련된 디자인과 혁신적인 마케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뷰티 산업의 확산에는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과 한인 기업이 함께 협력해 동반 성장한다면 K-뷰티도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이어 K뷰티 확산에 대한 열띤 토론도 열렸다. 고성현 경인여대 교수는 '산학협력 및 인재 양성의 중요성', 엄동기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혁신실장은 'K-뷰티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략', 백승민 엑스프리베 대표는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K-뷰티 확산 전략'에 대해 각각 발표한 뒤 토론을 벌였다.

포럼에 이어 미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페루, 중국, 체코 등에서 온 19명의 바이어와 국내 K-뷰티 기업간 수출상담회가 진행됐다. 수출상담회 취합 결과, 총 113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184억 원어치의 상담과 함께 계약 예상액 45억 원 상당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 5억 6천만 원 규모의 업무협약(MOU) 2건도 체결했다.

복수국적노인 기초연금 받으려면 국내 5년 거주해야

외국 현지 부동산·연금 등 '해외재산·소득 신고 의무' 신설

앞으로 65세 이상 복수국적 노인이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게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진다.

보건복지부는 4일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서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보다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에 국내에서는 거의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수급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즉, 복수국적의 65세 이상 노인이 국내 들어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주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대상의 '최저 보증 연금'을 시행하면서 3년 이상 자국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해서 지급하고 있다. 또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해외 소득·재산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 세금을 투입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상 인생 대부분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문제를 두고서는 지난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사는 복수국적 노인에게조차 자격만 갖추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만큼은 막고자 애썼다. 기초연금법상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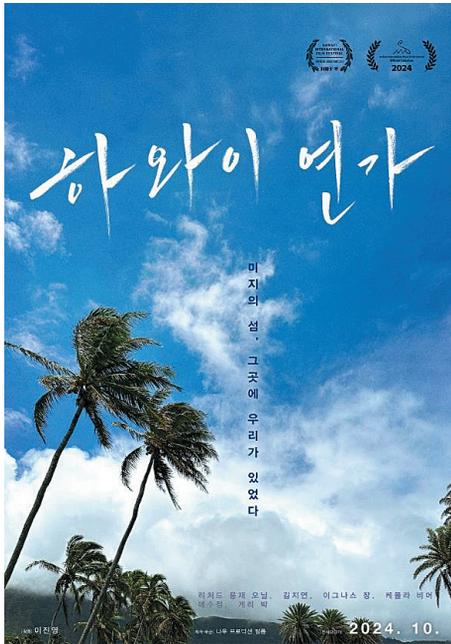
통계청 김지은 행정통계과장이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연금 통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빼는 등 적어도 국내에 살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게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현재 복수국적 노인은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로 귀국해서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충족하지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 단일 국적 노인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가 느는 와중에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와 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121년 한인사 음악영화 '하와이 연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초청

조수미 · 용재 오닐 · 김지연 · 최태성 등 참여...토크콘서트도



'하와이 연가' 영화 포스터(왼쪽)와 이진영 감독.



나우프로덕션필름은 121년 된 하와이 한인 이주사를 배경으로 제작한 음악영화 '하와이 연가'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초청돼 지난 6일과 8일에 시사회(GV)를 개최했다.

재미동포 이진영 감독은 아름다운 하와이 풍광과 이민 선조들의 발자취를 현지촬영으로 카메라에 담았다.

여기에 성악가 조수미의 노래와 그래미상 수상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줄리아드 콩쿠르 우승의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 하와이의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케올라 비머 등의 연주가 담겼고, 베테랑 배우 예수정이 사진 신부 '임옥순'의 목소리 연기를 더했다.

첫날 6일 시사회에는 한국사 작가로 영화 감수와 역사 자문을 한 최태성 강사, 이진영 감독, 각본에 참여한 한인 후손 게리 박 작가가 참여해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하와이 연가는 지난 해 10월 제43회 하와이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돼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됐다.

이후 캘리포니아 UC 얼바인 대학을 비롯한 학교와 워싱턴 미주 한인위원회, 로스앤젤레스 한미연합회 등의 행사에서 상영됐다. 미 공영방송 PBS를 통해 방영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오는 10월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이 감독은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국인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것이 하와이 한인사의 시작"이라며 "이들 이민자가 왜 고국을 등지고 먼 이국땅에 정착했고 뿌리를 내려 오늘날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하게 됐는지를 연주와 함께 들려주는 영화"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 감독은 지난 2021년 미주 한인 이민사를 다룬 '무지개 나라의 유산'으로 리버티국제영화제, 타고르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신인 감독상을 수상했고, '제41회 하와이국제영화제'를 비롯해 전 세계 10여 개 영화제에 초청받아 '118년 하와이 한인 이민 역사를 따뜻하고 감성적인 시각으로 다룬 수작'이라는 평을 받았다.



‘제22차 한독포럼’ 독일서 개최…양국 협력 방안 논의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사장 김기환)은 지난 5~6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제22차 한독포럼’에서 양국의 미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한독 가치 기반 전략적 파트너십’을 주제로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임상범 주독일한국대사, 김희정·김형동·김영배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독일 측에서는 마틴 돌리히 독한포럼 공동의장, 프랑크 하르트만 독일 외무청 아태국장, 라스 로헤어 연방의회 의원, 딜 세어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대표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사태, 러북 군사협력 등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양국이 다양한 도전에 긴밀히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발사 및 무기 수출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평가하는 한편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경제난에 우려를 표명했다.

코익스, 라오스 등 4개국에 청년중기봉사단원 75명 파견

사단법인 코익스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청년중기봉사 사업’ 대상국 4곳에 75명의 단원을 파견했다고 6일 밝혔다. 코익스는 지난 4월 컨소시엄을 통해 청년중기봉사단 사업 5개 분야 가운데 디지털(65명), 장애·인권(10명) 등 2개 분야에서 사업 용역을 따냈다. 코익스는 국내 교육과 원격 해외 온라인 봉사활동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라오스와 캄보디아, 르완다, 탄자니아 등 4개국에 1차 단원을 파견했다. 사단법인 한국디지털교육협회와는 디지털 분야 사업을 진행하며, 사단법인 그린티처스와는 장애·인권 분야 사업을 진행한다. 단원들은 코익스 현지사무소 주관으로 현지어, 문화 체험, 안전 교육 등을 받는다. 이달 중 현지 교육기관 및 장애인기관 등에서 12월까지 봉사활동을 한다. 코익스 관계자는 “2026년까지 2개 분야에서 3차례 봉사단원을 파견해 한국과 협력국 간 우호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익스는 빈곤 감소와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을 위해 활동하는 외교부 허가 비영리단체로, 2016년 설립됐다.



제8회 중국 조선족 청소년 꿈 발표축제 심양서 개최

제8회 중국청소년 꿈 발표축제가 8월 31일 동북3성 조선족학교에서 선발된 15명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양 한제원민속문화산업원에서 열렸다. 미국 나의꿈국제재단이 주최하고 나의꿈국제재단 중국지부, 료녕성조선족문학회, 연변작가협회 료녕지구창작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꿈 발표제전은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꿈을 발굴하고 위기에 도전하는 자아를 찾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온라인 추첨순서에 따라 15명 소년 소녀들의 순수한 꿈 이야기가 이어졌다. 외교관, 아나운서, 요리사, 꿈 모양도 다양했다. 심양시조선족제1중학교 계은경 학생이 ‘저 하늘의 셋별처럼 반짝이는 나의 꿈’으로 대상, 심양시서탑조선족소학교 리기진 학생이 ‘요리사의 꿈을 키워’로 금상을, 심양시조선족제2중학교 한수진 학생이 ‘심리 미술사의 꿈’, 료녕성대련시조선족학교 리훤이 학생이 ‘내 마음 속의 조각상’으로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 그외 심양시서탑조선족소학교 심수아 학생의 ‘외교관의 꿈을 꾸어요’ 등 12명이 우수상을 받았다.

인구감소 대책, ‘재외동포청’ 이 나서야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큰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 외국인 인력 유입 등,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입 확대 정책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 주민현황은 한국계 중국인 9만여 명을 포함하여 20만여 명이지만 인구감소에 대처하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750만 재외국민 우수 인력을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외국민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 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고려인 국내이주 정책이 좋은 예이다. 재외동포청은 고려인을 포함한 재외동포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려인들의 국내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비자, 거주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결과 국내 거주 고려인 수는 2007년 2,392명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들어 젊은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한국 이주 분위기가 크게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는 최근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 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정서를 파악하려는



강남중
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전 버지니아주한인회장)

의도이지만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의회에서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정책위에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까지 하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55세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민 반감 우려 등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나서야 할 부분은 또 있다.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 중 시민권을 따지 못해 ‘무국적자’ 신세가 된 4만여 명에게 속히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허가하는 것이다. 입양 당시 한국 정부의 허술한 제도로 인해 ‘국제미아 신세’가 된 그들에게 정부는 당연히 국적을 부여해야 할 책임도 있다.

한국은 오랫동안 세계 최대의 고아 수출국이다. 2023년 6월 30일,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제입양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이다. 저출산 여파로 입양아 수도 10여 년 전 천 명대에서 5백명 대 이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40% 정도는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이참에 국제 입양 금지법을 제정하길 제안한다. 세계에는 이미 국내법으로 입양 금지법을 채택하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다. 그들도 인구 감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증거이다.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한 명 한 명의 어린 아이와 국민이 소중한 지금, 재외동포청의 관심과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한 때이다. **[참]**

※ 기고자의 주장이나 의견은 재외동포청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주요 일정

-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발표(9월 말)
- 세계한인회장대회(10월 1~4일)
- 한인비즈니스대회(10월22일~24일)

9월 재외동포청장 동정

- 4일: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 중국한인기업가협회 임원 및 관계자 면담
-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 6일: 미주한국학교연합회 이사장 면담,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
- 9일: 제 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현장 점검(전북 전주)
- 9일: 지방시대위원장 면담
- 10일: 제25회세계지식포럼 개막식(인천 영종도)
- 11일: OBS경인TV대표이사 면담
- 12일: 고려인동포 민생현장 방문(제천)
- 13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면담
- 19일: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 회장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면담

재외동포청 공지

전북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신청 연장...9월30일까지

바이어 · 일반인 대상 ‘한상넷’ 서 신청...등록비 무료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참가등록 신청 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대한민국과 재외동포가 상생발전하고, 상호 네트워크 구축에 관심있는 분들의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신청은 한상넷 홈페이지(www.hansang.net)에서 직접하면 된다. 바이어와 일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며, 등록은 무료다.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오는 10월 22~24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전북대학교)에서 ‘재외동포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열린다.

대회는 기업전시회,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스타트업 경연대회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과 리딩 CEO 포럼,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 벤처캐피털(VC) 투자포럼 등 최근 경제이슈를 반영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국내 청년대상 토크 콘서트, 한인 CEO 특강 등 청년 참여를 유도하고, 전북지역 문화·관광·산업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막 기념 테이프 커팅식 모습.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올해 대회에 관심을 갖고 참가 등록을 해준 모든 분께 감사한다”면서 “재외동포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70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오늘의 대한민국이 빛나기까지 **재외동포**도 함께했습니다.

하와이의 뜨거운 사탕수수밭과
중남미의 선인장 농장에서 번 돈은
우리의 **독립자금**으로 쓰였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현지 송금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소중한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을 비롯한 **총영사관** 등
공관 10개 중 9개는
재일동포의 기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개최할 때,
또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에도
재외동포는 힘을 모아 주었습니다.